10월의 기도

1. 총재 조용기 목사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시간 동안 우리에게 주신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추모 4주기를 맞아그 분의 삶과 사역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믿음과 사랑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유산을 기억하며,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더욱 선교사역에 매진하게 하시옵소서.

2. 은혜로우신 하나님, 가을의 황금빛 들판을 보며 당신의 풍성한 은혜를 찬양합니다. 먼 곳에서 당신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그들의 사역이 열매를 맺고, 그들이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당신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항상 당신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3. 오늘날 우리는 세상이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우리 마음 속에 가득 차게 하시고, 그 사랑이 세상 곳곳에 퍼져 나가게 하옵소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모든 이들이 하나 되어 평화로운 세상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4. 가을의 문턱인 이 계절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욱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조용기 목사 특별 메시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8)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좀 더 나은 내일과 더욱 큰 행복을 얻으며 좀 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무엇을 심어야 할 것인가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악, 부정, 불안, 파괴와 절망을 심어 놓고 그 곳에서 행복과 즐거움과 부유와 풍요가 거둬지리라 생각한다면 이는 우주의 법칙을 무시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창 1:11-12)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밭이고 생각은 씨앗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밭에 두 종류의 씨가 뿌려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뿌린 천국의 아들들이 되는 씨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탄이 뿌린 가라지입니다. 우리의 마음 밭에 천국의 아들들의 씨가 뿌려지면 우리는 천국의 자녀들이 되고, 가라지 씨앗이 심겨지면 가라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밭에 어떠한 씨를 뿌리느냐에 따라 어떠한 것을 추수하느냐가 결정되므로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패배를 승리로, 죽음을 생명으로, 질병을 건강으로, 불행을 행복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여러분의 삶과 미래를 새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되려면 여러분이 회개함으로써 마음의 밭에 심어진 가라지를 다 뽑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 들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파괴와 절망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은 말씀의 씨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순복음동경교회, 시가끼 시게마사 목사님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태승, 정경자, 최인철, 함석숙 님께서 후원해 주셨으며 별칭 및 익명으로 후원해 주신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후원을 위한 계좌안내 :
예 금 주 : 디시이엠
계좌번호 181-22-02127-7 혹은
256-890020-00804 (하나은행)

DCEM 뉴스레터 구독신청 안내

DCEM에서는 故 조용기 목사님의 선교 사역의 발자취와 새로운 선교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 간행물 ‘뉴스레터(DCEM NewsLetter)’를 제작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DCEM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 또는 정기간행물을 무료로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DCEM에 연락주시면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TEL : 02) 6181-5064 / dcem@davidcho.com

October News Letter DCEM David Cho Evangelistic Mission

DCEM 2025년 해외성회 〈조용기 목사 일본선교기념 성회〉

한국교회 부흥과 세계선교에 헌신했던 영산 조용기 목사의 4주기 추모예배가 9월 14일 동경 요츠야 구민홀에서 열렸다. 순복음동경교회(담임 시가끼 시게마사 목사, DCEM 사무총장) 주최, 순복음일본총회 동경지방회가 후원하고 DCEM이 주관한 이번 ‘조용기 목사 일본선교기념 성회’는 순복음동경교회 찬양팀의 찬양으로 시작해 셀라 앙상블의 특별 찬양에 이어 2007년 일본 마쿠하리에서 열렸던 지저스 페스티벌 영상을 상영하며 회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2007 마쿠하리 지저스 페스티벌은 당시 일본 모든 항공편을 결항시킬 정도의 큰 태풍과 지진이 일어난 가운데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성회 당일이 되어 발생한 지진이 갑자기 잠잠해져 무사히 개최될 수 있었던 기적의 현장이었다. 이후 야마토 갈보리 채플 담임 오오가와 쓰구미치 목사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는 “1977년 저의 교회를 조용기 목사님께서 불현듯 방문하셨을 때 목사님이 얼마나 유명한 분인지도 잘 알지 못했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큰 꿈과 환상을 보라.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신다.’라는 격려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교회는 성장했고, 조용기 목사님과 함께 히비야 공회당, 일본 무도관, 여의도순복음교회 주일예배에서도 설교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어 “저는 일본 복음파 교단에 속해 있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한 결과 복음파에서 제명되어 독립교회로 40여년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복음공로상을 받게 되어 11월 4일 시상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을 만나 큰 꿈과 환상을 가지고 살며 기도를 배우고, 고난 속에서도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간증하며 조용기 목사를 회고했다.

이후 연합성가대의 특별찬양과 세계 선교 영상 시청 다음으로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 이영훈 목사가 스크린을 통해 추모의 메시지를 전했다. “조용기 목사님이 남겨주신 믿음의 유산은 성령 충만,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 그리고 무엇보다도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믿음의 능력이었습니다. 이 믿음의 유산을 어떻게 계승하고 발전시킬지 깊이 고민하며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 반드시 일본 일천만 구령의 사명을 완수하는 주님의 종이 되기를 간절이 원합니다.”라고 전하였다.

계속해서 성회장에서는 내년 2월 14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 ‘청년 용기’의 트레일러 영상이 약 6분간 상영됐다. 현장에 있던 성도들은 스크린을 통해 조용기 목사의 생애와 그의 믿음의 행진을 회고하는 순간을 가졌다. 이어 설교를 전한 시가끼 시게마사 목사는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4절을 통해 “4차원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조용기 목사 일본선교기념 설교를 전했다. 시가끼 목사는 고백의 중요성과 그 능력에 대해 선포하며, “생각이 변화되어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면 꿈을 꾸게 되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생길 때 믿음에 생명이 깃든다.”라며 조용기 목사의 4차원의 영성을 기반한 믿음의 메시지를 선포했다. “꿈이 우리를 이끌어 가려면, 입술의 고백으로 믿음에 불을 붙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생각을 바꾸고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으라고 권면했다.

이날 성회 현장에서는 설교가 마친 후 진행순서에 예정되지 않았던 결신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 설교가 마칠 때쯤 성회 진행 요원이 강대상으로 하얀 쪽지를 갖고 올라왔고, 그것을 전달받은 시가끼 시게마사 목사는 이내 단상에 앉아있던 귀빈들과 모든 성도들을 일으켜 세우고 현장에서 결신하기로 다짐한 20여명의 결신자들을 향해 모두가 축복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한 결신자는 축복을 받으며 눈물을 보이기 까지 했다.

오오가와 쓰구미치 목사의 축도로 마무리된 ‘조용기 목사 일본선교기념 성회’는 용서라는 큰 희생과 치유, 절대 긍정의 고백과 꿈을 품고 오직 성령님께 의지하며 기도하는 믿음 그리고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와 성령 안에서의 하나됨을 통해 일본 복음화와 부흥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기도한 시간이었다.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말하는 은사

야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 (시편 8편 1절~9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에는 굉장한 창조적 힘이 있는 것입니다. 말하는 곳에,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고 변화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1. 잃어버린 말의 권세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말에도 창조적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돌보고 다스리라고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말에도 창조적 힘과 권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예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동물이 아담과 하와 앞을 지나갈 때,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일러 주었는데, 그때 불린 이름이 곧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죄를 짓기 전의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권을 받아서 행사할 수 있었으며, 그 입술의 말에도 권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말할 수 있는 권세"도 죽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4차원의 말은 잊어버리고, 1, 2, 3차원의 말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차원의 세계와 교제할 수 있는 말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말조차 사분오열되어 서로 교제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2. 새로운 피조물과 새로운 언어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4차원의 세계와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새로운 말을 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새로운 말은 4차원 세계가 열린 것이요, 그 말에는 4차원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4차원의 근원이므로,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모시면, 성령께서 우리 삶의 주된 권세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태산 같은 문제를 만날 때가 있지요. 그런 문제를 당할 때는 예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입술의 말로 명령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직업의 문제, 어떠한 문제든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이렇게 말로써 명령하고 계속 기도하면, 태산 같은 문제가 옮겨가는 것입니다.

3.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과 권세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8편은 인간을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이 말씀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여러분도 3차원의 물질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인생이라는 땅을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지는 하나님이 만드셨으나 우리의 세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개간하고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황무지로 내버려두지 말고 장미꽃이 피는 아름다운 동산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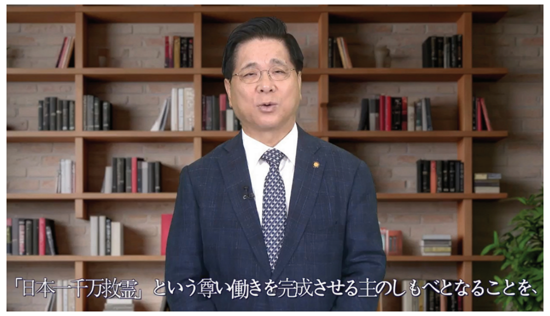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환경을 다스리고 변화와 창조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이러한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삶에 변화와 창조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과 권세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과 권세를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권세를 사용한다는 것은,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세 있게 명령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권세를 사용하신 모습을 보십시오. 갈릴리 바다에 파도가 일어서 배가 물속으로 완전히 침몰될 위기에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보시고 권세 있게 명령하셨습니다.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그 권세 있는 말씀에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나사로를 살릴 때도 예수님께서는 무덤 안에 있는 나사로를 향해 권세 있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자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가 죽음을 박차고 일어나 걸어 나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모르면,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위치와 권세를 알면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알면, 원수 마귀를 향해서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렇게 담대하게 명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에도 병을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에서 떠나가라" 그렇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오중복음이 여러분의 것임을 날마다 말하십시오. 죄가 용서 되었다고 말하십시오. 허물이 지워졌다고 말하십시오. 병이 나았다고 말하십시오. 저주에서 해방되었다고 말하십시오. 죽은 것이 살아났다고 말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말을 통해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승리를 가져다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 '조용기 목사 일본선교기념 성회' 이모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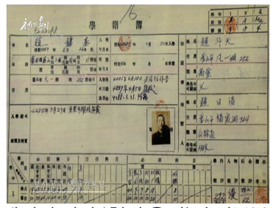
'조용기목사 일본선교 기념예배' 현지 포스터



스크린을 통해 추모 메시지를 전하는 이영훈 목사

연합성가대 셀라 앙상블 찬양

순복음동경교회 무용단



내년 2월 14일 개봉 예정인 영화 '청년 용기'의 일부분